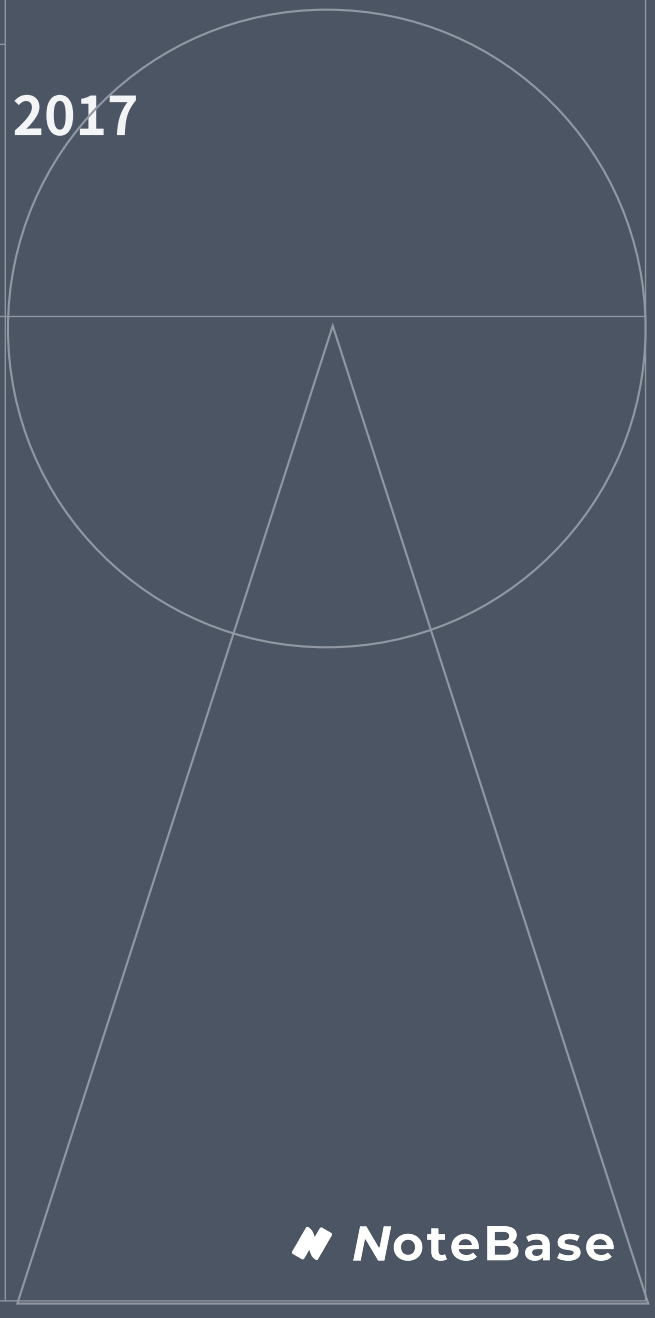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17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17

1.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자연스러운 것은?

① 철수의 장점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한다.

② 선생님은 학생들의 애환을 친절하게 들어주고 위로해 주시려고 노력하셨다.

③ 지금으로써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④ 김 씨는 "사람들이 매우 흥분해서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⑤ 가세가 기운 뒤로는 그토록 인심이 후하던 그녀도 점차 야박해져 갔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판단할 때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 조사의 쓰임, 인용 표현의 문장 부호를 함께 살펴야 한다.

핵심 개념

주술 호응은 주어와 서술어가 문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관계이다. 또한 단어는 관습적으로 어울리는 말과 결합해야 하며, '로서'는 자격·지위, '로써'는 수단·도구를 나타낸다. 직접 인용문 뒤에 인용 조사 '고'가 이어질 때에는 인용문 끝의 마침표를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철수의 장점은'이라는 주어가 '최선을 다한다'라는 서술어와 호응하지 않는다. '철수의 장점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며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로 고치면 자연스럽다.
② X — '애환을 들어주다'라는 단어의 결합이 어색하다. '애환'은 슬픔과 기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므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뜻하는 '애로 사항'을 써서 '학생들의 애로 사항을 친절하게 들어 주고 위로해 주시려고 노력하셨다'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X — '지금으로써는'에서 '로써'의 쓰임이 잘못되었다. 이 문장에서는 현재의 처지나 입장을 나타내므로 '지금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로 고쳐야 한다.
④ X — 직접 인용문 뒤에 인용 조사 '고'가 이어지는데 인용문 끝에 마침표를 쓴 것이 어색하다. '김 씨는 "사람들이 매우 흥분해서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O — '가세가 기울다', '인심이 후하다', '야박해져 가다'가 의미상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집안 형편이 나빠진 뒤 사람의 태도가 변해 가는 흐름도 잘 드러난다.

오답 포인트

③의 '로서/로써'처럼 형태가 비슷한 조사를 혼동하거나, ②의 '애환/애로 사항'처럼 뜻이 비슷해 보이는 말을 문맥만 보고 선택하기 쉽다. ①은 문장이 길어지면서 주어 '장점은'과 서술어 '다한다'의 호응이 어긋난 점을 놓치기 쉽고, ④는 인용문 내용보다 인용 조사 앞의 마침표에 주의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장의 주어와 마지막 서술어를 연결해 호응을 확인한 뒤, 단어끼리 자연스럽게 결합하는지 살핀다. 다음으로 '로서/로써'처럼 기능이 다른 조사와 직접 인용문 뒤의 인용 조사 및 문장 부호를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자격·지위는 '로서', 수단·도구는 '로써'이다. 자연스러운 문장은 주술 호응, 어휘 결합, 조사, 인용 표현이 모두 맞아야 한다.

NoteBase

2.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단어 수는?

>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 이어서 길어지는
> 또 하나의 기차가 되어
> 먼 길을 가요

① 7개
② 8개
③ 10개
④ 12개
⑤ 14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국어 문법에서 조사와 어미를 구분하여 밑줄 친 부분의 단어 수를 세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밑줄 친 부분은 '또 하나의 기차가 되어 먼 길을 가요'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지만 하나의 단어로 세고, 용언의 어미는 별도의 단어로 세지 않는다.

사용할 기준

'또 / 하나 / 의 / 기차 / 가 / 되다 / 멀다 / 길 / 을 / 가다'로 나눈다. '되어', '먼', '가요'는 각각 기본형이 '되다', '멀다', '가다'인 용언 한 단어이며, 그 안의 어미는 단어 수에 더하지 않는다.

계산 과정

1. 또: 1개이다.
2. 하나+의: 수사 '하나'와 조사 '의'이므로 2개이다.
3. 기차+가: 명사 '기차'와 조사 '가'이므로 2개이다.
4. 되어: 동사 '되다' 1개이다.
5. 먼: 형용사 '멀다' 1개이다.
6. 길+을: 명사 '길'과 조사 '을'이므로 2개이다.
7. 가요: 동사 '가다' 1개이다.

따라서 1+2+2+1+1+2+1=10개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7개는 띄어쓰기 단위인 어절을 센 결과이다. 조사 '의', '가', '을'도 각각 단어이므로 올바른 단어 수는 10개이다.
② X — 8개가 아니다. 앞말에 붙은 세 조사 '의', '가', '을'을 모두 독립된 단어로 포함하면 10개가 된다.
③ O — 조사 세 개는 각각 단어로 세고, '되어', '먼', '가요'의 어미는 따로 세지 않으면 총 10개이다.
④ X — 12개가 아니다. '되어', '먼', '가요'를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 어미까지 단어로 세면 수가 많아진다. 어미는 단어가 아니므로 올바른 수는 10개이다.
⑤ X — 14개가 아니다. 단어 수를 셀 때 모든 형태소를 각각 단어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조사만 별도 단어로 세고 어미는 제외하므로 올바른 수는 10개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띄어 쓴 덩어리의 수'와 '단어의 수'를 같다고 보는 것이다. 이 구절은 7어절이지만, 앞말에 붙여 쓰는 조사 '의', '가', '을'도 단어이므로 단어 수는 3개가 늘어난 10개이다. 반대로 어미는 형태소이지만 독립된 단어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띄어쓰기 단위인 어절을 세고, 각 어절에 붙은 조사의 수를 더한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다시 나누어 단어 수에 더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조사는 단어로 세고, 어미는 단어로 세지 않는다. 이 문장은 7어절에 조사 3개를 더하여 10단어이다.

NoteBase

3. 다음은 가사 작품 <상춘곡>의 첫 부분이다. 내용을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때,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곳은?

>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엇더ᄒᆞᆫ고. 녯 사ᄅᆞᆷ 풍류(風流)ᄅᆞᆯ 미출가 ᄆᆞᆺ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ᄒᆞᆫ 이 하건마ᄂᆞᆫ, 산림(山林)에 뭇쳐 이셔 지락(至樂)을 ᄆᆞᄅᆞᆯ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앒픠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예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셔라.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ᄂᆞᆫ 석양리(夕陽裏)예 퓌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ᄂᆞᆫ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calo 물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헌ᄉᆞᄅᆞᆸ다. ㉤수풀에 우ᄂᆞᆫ 새ᄂᆞᆫ 춘기(春氣)ᄅᆞᆯ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사의 내용이 크게 전환되는 지점을 찾아 두 문단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단은 하나의 중심 내용을 이루는 문장들의 묶음이다. 이 글의 앞부분은 화자가 자연에 묻혀 사는 삶과 수간모옥·벽계수·송죽으로 이루어진 거처를 제시하고, ㄷ부터는 겨울이 지나 돌아온 봄의 경치를 도화·행화·녹양·방초 등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따라서 삶과 거처의 제시에서 봄 경치의 묘사로 중심 내용이 바뀌는 ㄷ이 둘째 문단의 시작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ㄱ X
ㄱ 앞뒤는 모두 자연 속에서 사는 화자의 삶에 관한 내용이다. ㄱ에서 나누면 첫 문단의 중심 내용이 아직 이어지는 중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틀린 지점은 ㄱ이며, 올바른 시작 지점은 ㄷ이다.

② ㄴ X
ㄴ은 수간모옥, 벽계수, 송죽 등 화자가 자연에서 살아가는 거처를 구체화하는 부분이다. 앞의 자연 속 삶과 같은 내용 범주이므로 문단 전환점이 아니다. 틀린 지점은 ㄴ이며, 올바른 시작 지점은 ㄷ이다.

③ ㄷ O
ㄷ부터 시간적 배경이 새봄으로 바뀌고, 도화·행화·녹양·방초를 통해 봄 경치를 본격적으로 묘사한다. 화자의 삶과 거처를 제시하던 앞부분에서 계절의 경관을 묘사하는 부분으로 중심 내용이 전환되므로 둘째 문단은 ㄷ에서 시작한다.

④ ㄹ X
ㄹ은 ㄷ에서 제시한 아름다운 봄 경치를 조화신공의 솜씨라고 감탄하는 대목이다. ㄷ부터 시작된 봄 경치 묘사의 연속이므로 ㄹ에서 나누면 새 내용의 시작을 놓치게 된다. 틀린 지점은 ㄹ이며, 올바른 시작 지점은 ㄷ이다.

⑤ ㅁ X
ㅁ은 봄기운에 겨워 우는 새의 모습을 묘사하여 ㄷ부터 이어진 봄 경치를 덧붙인다. 이미 시작된 봄 묘사의 일부이므로 둘째 문단의 시작점이 아니다. 틀린 지점은 ㅁ이며, 올바른 시작 지점은 ㄷ이다.

오답 포인트

ㄹ의 감탄이나 ㅁ의 새 묘사가 눈에 띄어 새로운 내용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ㄷ에서 시작된 봄 경치 묘사를 이어 간다. 문단의 경계는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곳이 아니라 중심 내용이 처음 바뀌는 곳에서 정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표시 지점의 앞뒤에서 대상·시간·공간·화제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한다. 새 중심 내용이 처음 등장한 지점을 문단의 시작으로 잡고, 뒤 문장들이 그 내용을 계속 구체화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자연 속 삶과 거처는 ㄷ 앞까지, 새봄의 경치 묘사는 ㄷ부터이다.

NoteBase

4. 다음 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예술의 사회성에 대한 강조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현대사회의 발달에 따른 예술 자체의 변모와도 관련된 것이다. ( ) 예술은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은 비평가를 포함한 청중 또는 관중의 존재를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예술 공중은 예술작품을 수동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재해석하고 또 예술 창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술이 매체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도 예술의 사회성을 입증하는 증거의 하나이다. 하나의 작품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예술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으로 또는 관행에 의해 인정된 재료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예술의 매체는 기술의 발달, 사회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예술가의 예술 활동에 제한을 가한다. 예술은 습관, 경험, 기술의 복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 그것을 통해서 식별된다. 한 사회가 예술이라는 개념을 소유하기 전에, 또는 예술적이라고 부르는 관행이 수립되기 전에 예술작품의 생산이나 예술적 감상은 존재할 수 없다.

① 개인적이고 환원될 수 없는 존재로서 예술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② 현대사회에서 예술은 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
③ 예술은 자체가 역사적 산물이며 예술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천된다.
④ 예술의 연구는 인문주의적 전통 하에서 예술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었다.
⑤ 예술사회학은 예술과 사회학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상이한 성과를 초래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빈칸 뒤의 세부 내용이 공통으로 뒷받침하는 중심 문장을 찾는 문제이다. 예술은 창작자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사적인 활동이 아니라 청중, 매체, 사회적 인정과 관행의 영향을 받는 사회적·공적 활동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예술의 사회성이란 예술의 창작·수용·인정이 사회 구성원, 매체, 제도, 관행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 글은 청중의 능동적 해석, 매체와 기술의 영향, 사회적으로 인정된 재료와 절차, 예술 개념과 관행의 선행을 근거로 예술의 공적 성격을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개인적이고, 환원될 수 없는 존재'이다. 뒤에서는 예술이 청중, 매체, 사회적 인정과 관행에 의존한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예술의 개념이 개인에게만 환원되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와 관행 속에서 확립되었다고 해야 한다.

② O
빈칸 뒤의 모든 내용은 예술이 사적인 창작 행위에 그치지 않고 청중, 매체, 사회적 인정과 관행이 함께 작용하는 공적 활동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문단의 중심 문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③ X
틀린 표현은 '예술은 자체가 역사적 산물'이라는 단정과 '예술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천된다'에 초점을 둔 부분이다. 글의 핵심은 시대별 개념 변천 자체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드러나는 예술의 사회적·공적 성격이다. 올바르게는 예술이 사회의 변화와 관행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인문주의적 전통 하에서 예술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었다'이다. 빈칸 뒤에는 예술 연구의 학문적 명칭이나 전통에 관한 설명이 없다. 올바르게는 현대 예술이 청중, 매체, 사회적 인정과 관행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야 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예술과 사회학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상이한 성과를 초래하였다'이다. 글은 예술사회학의 연구 성과를 비교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예술의 창작과 수용이 사회 구성원과 제도적 관행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현대사회의 발달에 따른 예술 자체의 변화'와 연결되어 그럴듯하지만, 빈칸 뒤의 반복 근거는 시대별 변천이 아니라 청중·매체·사회적 인정·관행이다. 빈칸 문장은 이 근거들을 한꺼번에 묶는 '예술의 공적 성격'이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바로 뒤에서 반복되는 대상과 관계를 묶는다. 이 글에서는 청중, 매체, 사회적 인정, 관행이 모두 '예술은 개인만의 사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공적 활동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수렴한다.

암기 포인트

예술의 사회성은 창작자만이 아니라 청중·매체·관행이 함께 예술을 성립시킨다는 뜻이다.

NoteBase

5. 다음 중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① 맛문하다: 맛깔스럽고 정갈하다.
② 손방: 아주 할 줄 모르는 솜씨.
③ 곧추: 굽히거나 구부리지 아니하고 곧게.
④ 온새미로: 가르거나 쪼개지 아니한 생긴 그대로의 상태로.
⑤ 모꼬지: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형태만으로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고유어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묻는다.

핵심 개념

맛문하다: 몹시 지친 상태에 있다.
손방: 일을 아주 할 줄 모르는 솜씨이다.
곧추: 굽히거나 구부리지 않고 곧게 하는 모양이다.
온새미로: 가르거나 쪼개지 않고 생긴 그대로이다.
모꼬지: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맛깔스럽고 정갈하다'는 뜻풀이가 틀렸다. '맛문하다'는 '몹시 지친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② O — '손방'은 어떤 일을 아주 할 줄 모르는 솜씨를 뜻하므로 뜻풀이가 옳다.
③ O — '곧추'는 굽히거나 구부리지 않고 곧게 하는 모양을 뜻하므로 뜻풀이가 옳다.
④ O — '온새미로'는 가르거나 쪼개지 않고 생긴 그대로인 상태를 뜻하므로 뜻풀이가 옳다.
⑤ O — '모꼬지'는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을 뜻하므로 뜻풀이가 옳다.

오답 포인트

①의 '맛문하다'에 들어 있는 '맛'을 음식의 맛과 연결하면 '맛깔스럽고 정갈하다'는 그럴듯한 뜻풀이에 속기 쉽다. 그러나 '맛문하다'는 맛과 관계없이 몹시 지친 상태를 나타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낯선 고유어는 익숙한 음절의 현대적 의미로 추측하지 않고 단어 전체의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히 '맛문하다'는 피로 상태, '손방'은 서툰 솜씨, '곧추'는 곧은 모양으로 구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맛문하다는 맛깔스러움이 아니라 '몹시 지침'을 뜻한다.

NoteBase

6.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ㄱ. 최근에는 왼손을 많이 사용하면 창의성, 예술성 등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과거엔 전세계적으로 왼손잡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왼쪽은 '그르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였는가 하면,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재수가 없다'는 속설도 있었다. 영어로 왼손잡이를 뜻하는 'left-handed'에는 '서투른, 신분에 맞지 않는' 등의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돼 있으며, 프랑스어로 왼쪽을 의미하는 'gauche'에도 '비뚤어진, 어색한'이라는 뜻이, 독일어 'link' 역시 '의심스러운, 열등한'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다. 단어 자체의 부정적인 의미는 사람들의 인식에까지 영향을 끼쳐 왼손을 쓰는 아이는 때려가면서까지 고치게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ㄴ. '세계 왼손잡이의 날'의 슬로건은 독특하다. 전세계의 왼손잡이들에게 모든 것을 왼손으로 다루기 위해서 '개인공간을 왼손잡이만의 공간으로 만들라'고 말한다. 오른손잡이인 친구나 동료, 가족들 속에서 왼손잡이인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왼손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나 불편함 속에 고통 받아 왔다는 의미이다.

ㄷ.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연구 결과나 '왼손잡이는 머리가 좋다'와 같은 속설로 꾸준히 변해 왔지만, 아직 왼손잡이들이 살아가기에는 불편한 점들이 많다. 가위, 카메라 셔터, 컴퓨터 마우스, 자동차 기어, 지하철 개찰구 등 주변에서 흔히 보는 물건 대부분이 여전히 오른손잡이 친화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ㄹ. 왼손잡이들을 위한 특별한 날을 아는가? 매년 8월 13일은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다. 올해로 벌써 24년째를 맞은, 제법 오래된 기념일인 셈이다. 왼손잡이의 날은 1992년부터 세계 왼손잡이들이 의기투합해 왼손잡이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고충을 알리기 위해 기념하기 시작했다.

① ㄱ - ㄷ - ㄴ - ㄹ
② ㄷ - ㄱ - ㄴ - ㄹ
③ ㄷ - ㄹ - ㄴ - ㄱ
④ ㄹ - ㄱ - ㄴ - ㄷ
⑤ ㄹ - ㄴ - ㄱ - ㄷ

정답 5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시어와 반복어, 문단 사이의 내용 관계를 근거로 글의 전개 순서를 정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ㄹ → ㄴ → ㄱ → ㄷ

1. ㄹ — '세계 왼손잡이의 날'의 날짜, 역사, 제정 목적을 처음 소개한다.
2. ㄴ — 앞에서 소개한 '세계 왼손잡이의 날'의 슬로건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한다.
3. ㄱ — 왼손잡이가 겪어 온 부정적 인식의 구체적 사례와 최근의 긍정적 연구 결과를 함께 제시한다.
4. ㄷ — ㄱ에서 다룬 인식의 변화를 '인식은 … 변해 왔지만'으로 받아, 생활 도구가 여전히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현실적 불편을 덧붙인다.

왜 이 순서인가: ㄴ의 '세계 왼손잡이의 날'은 ㄹ에서 먼저 소개되어야 하며, ㄷ의 '인식은 … 변해 왔지만'은 ㄱ에서 제시한 긍정적 연구와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으로 시작하면 글의 중심 소재인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 소개되기 전에 왼손잡이에 관한 연구와 인식부터 제시된다. 또한 ㄴ의 '세계 왼손잡이의 날'은 ㄹ의 소개를 먼저 필요로 한다. 틀린 순서 'ㄱ-ㄷ-ㄴ-ㄹ'은 올바르게는 'ㄹ-ㄴ-ㄱ-ㄷ'이다.

② X — ㄷ의 '인식은 … 변해 왔지만'은 앞에서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설명한 ㄱ을 전제로 하므로 ㄷ이 ㄱ보다 앞설 수 없다. ㄴ도 '세계 왼손잡이의 날'을 소개하는 ㄹ보다 먼저 놓일 수 없다. 틀린 순서 'ㄷ-ㄱ-ㄴ-ㄹ'은 올바르게는 'ㄹ-ㄴ-ㄱ-ㄷ'이다.

③ X — ㄷ은 ㄱ의 긍정적 연구 결과와 인식 변화를 받아 현실의 불편으로 전환하는 문단이므로 ㄱ보다 뒤에 와야 한다. 틀린 순서 'ㄷ-ㄹ-ㄴ-ㄱ'은 올바르게는 'ㄹ-ㄴ-ㄱ-ㄷ'이다.

④ X — ㄹ에서 '세계 왼손잡이의 날'을 소개한 직후에는 그 기념일의 슬로건을 설명하는 ㄴ이 이어져야 한다. ㄱ을 사이에 넣으면 '세계 왼손잡이의 날'의 직접적인 반복 연결이 끊어진다. 틀린 순서 'ㄹ-ㄱ-ㄴ-ㄷ'은 올바르게는 'ㄹ-ㄴ-ㄱ-ㄷ'이다.

⑤ O — ㄹ에서 기념일을 소개하고, ㄴ에서 그 기념일의 슬로건과 취지를 설명한 뒤, ㄱ에서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의 과거와 현재를 제시하고, ㄷ에서 변화한 인식과 달리 남아 있는 현실적 불편을 설명하므로 자연스럽다.

오답 포인트

④의 'ㄹ-ㄱ'은 모두 왼손잡이를 다루므로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ㄴ의 첫 문장에 나온 '세계 왼손잡이의 날'은 ㄹ에서 방금 소개한 대상을 직접 반복한다. 또한 ㄷ의 '긍정적인 연구 결과나 … 속설로 꾸준히 변해 왔지만'은 ㄱ의 최근 연구 결과와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받아 주므로 ㄱ과 ㄷ의 선후도 바꿀 수 없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형 문제는 먼저 처음 등장하는 대상을 소개하는 문단을 찾고, 다음으로 지시어·반복어가 그 대상을 받는 문단을 붙인다. 이어서 ‘하지만’, ‘이러한’과 같은 연결 표현이 앞 문단의 어떤 내용을 전제로 하는지 확인하면 순서를 확정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새 대상 소개가 먼저, 반복 설명이 다음, ‘하지만’의 전제 문단은 그보다 앞이다.

NoteBase

7. 다음 글의 ㉠~㉢에 들어갈 접속부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공장에서 식품을 생산하여 가능한 한 많은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사람들이 기울여 온 노력은 지구촌에 자본주의 시대가 열린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지상 과제 중 하나이다. (㉠) 오늘날 사람들은 우주 시대에 어떻게 먹을거리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 21세기는 먹을거리에 관한 한 '풍요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이 주류를 이루는 듯하다. (㉢)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풍요의 시대가 '약속된 하느님의 뜻'인 것 같지 않다. 일부에서는 유전자 조작에 의해 생산된 콩이나 돼지고기를 먹은 우리가 과연 온전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	㉡	㉢
①	그래서	그러나	그렇지만
②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
③	그러나	심지어	그리고
④	심지어	그래서	하지만
⑤	하지만	그래서	그러나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여 첨가·강조, 인과,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부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심지어: 앞의 내용에 더 뜻밖이거나 한층 강한 내용을 덧붙이는 접속부사이다. 키워드는 첨가·강조이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원인이나 근거로 삼아 뒤에 결과를 잇는 접속부사이다. 키워드는 인과이다.
하지만·그러나·그렇지만: 앞뒤 내용이 서로 반대되거나 기대와 어긋날 때 쓰는 접속부사이다. 키워드는 대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그래서'는 앞 문장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처리하므로 부적절하고, ㄴ의 '그러나'도 관심의 증대에서 낙관적 전망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대조로 바꾸므로 부적절하다. ㄷ의 '그렇지만'은 낙관적 전망과 현실을 대조한다는 점에서 알맞다. 틀린 배열을 고치면 '심지어-그래서-그렇지만'이 된다.

② X
ㄱ의 '그런데'는 화제를 전환하거나 대조하는 느낌이어서 '오늘날에는 더욱'이라는 첨가·강조 관계를 살리지 못한다. ㄴ의 '그리고'는 단순 나열에 그쳐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지 못하며, ㄷ의 '심지어'는 낙관적 전망과 현실의 반대를 나타내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심지어-그래서-하지만'이다.

③ X
ㄱ의 '그러나'는 앞 문장과 오늘날의 관심을 반대 관계로 만들고, ㄴ의 '심지어'는 인과 관계를 뜻밖의 내용에 대한 첨가 관계로 바꾸며, ㄷ의 '그리고'는 전망과 현실의 대조를 단순 나열로 처리하므로 모두 부적절하다. 올바르게는 '심지어-그래서-하지만'이다.

④ O
ㄱ의 '심지어'는 오랫동안 이어진 식량 문제 해결 노력에 더하여 오늘날 우주 시대의 식량 문제까지 관심이 확대되었음을 강조한다. ㄴ의 '그래서'는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21세기를 '풍요의 시대'로 보는 낙관적 전망이 나타났음을 잇는다. ㄷ의 '하지만'은 그 낙관적 전망과 유전자 조작 식품을 둘러싼 불안한 현실을 대조한다.

⑤ X
ㄱ의 '하지만'은 앞 문장과 오늘날의 관심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조 관계를 만든다. ㄴ의 '그래서'와 ㄷ의 '그러나'는 각각 인과와 대조 관계에 알맞지만, ㄱ을 고치면 '심지어-그래서-그러나'가 된다.

오답 포인트

하지만·그러나·그렇지만이 모두 대조 기능을 한다는 점만 보고 ㄷ을 고르면 여러 선지가 그럴듯해 보인다.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ㄱ의 '오늘날'과 '더욱'에서 첨가·강조 관계를, ㄴ에서 앞선 관심과 뒤의 낙관적 전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빈칸의 바로 앞뒤 문장을 한 쌍으로 묶어 관계를 판단한다. 내용이 한층 강해지면 '심지어', 앞이 원인이고 뒤가 결과이면 '그래서', 앞의 전망과 뒤의 현실이 반대되면 '하지만·그러나·그렇지만'을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심지어는 첨가·강조, 그래서는 인과, 하지만·그러나·그렇지만은 대조이다.

NoteBase

8.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서 국어의 어법상 옳은 것은?

① 우리 할머니는 항상 옛스러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다니신다.
②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연변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구정만 쇘다고 하더라.
③ 학교까지 얼만큼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④ 바이올린 신동의 연주가 끝나자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콘서트홀 안을 가득 메웠다.
⑤ 여기가 우리의 홈구장이라는 잇점을 감안하면 현재 랭킹에서 좀 밀리지만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듯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표준어의 형태와 준말, 사이시옷 표기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어는 정해진 형태로 적어야 하며, 발음이나 익숙한 표기에 이끌려 형태를 바꾸어 적으면 안 된다.
'예스럽다·얼마큼·우레·이점'이 표준 표기이고, '쇠다'에 '-었다'가 결합한 '쇠었다'는 '쇘다'로 줄여 쓸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옛스러운'은 잘못된 표기이다. '예전과 같은 맛이나 멋이 있다'는 뜻의 표준어는 '예스럽다'이므로 '예스러운 한복'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명절을 지내다'라는 뜻의 동사는 '쇠다'이다. '쇠었다고'가 줄어든 '쇘다고'는 올바른 표현이므로 '예전부터 구정만 쇘다고 하더라'는 어법에 맞다.
③ X — '얼만큼'은 잘못된 표기이다. '얼마만큼'의 준말인 '얼마큼'을 써서 '학교까지 얼마큼 더 가야 하는지'로 고쳐야 한다.
④ X — '우뢰'는 잘못된 표기이다. 천둥을 뜻하는 표준어 '우레'를 써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고쳐야 한다.
⑤ X — '잇점'은 잘못된 표기이다. 한자어 '이점'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으므로 '여기가 우리의 홈구장이라는 이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쇘다고'를 익숙하지 않은 형태라는 이유로 틀렸다고 판단하기 쉽다. '쇠다'의 과거형은 '쇠었다'이고, 이것이 '쇘다'로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반면 ①·③·④·⑤는 실제 발음이나 과거에 익숙했던 표기에 끌려 잘못 적은 형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을 기본형과 결합 형태로 되돌려 판단한다. 준말은 본말로 풀어 보고, 사이시옷은 합성어의 구성과 예외 여부를 확인하며, 발음이 자연스럽다는 이유만으로 표준 표기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예스럽다·얼마큼·우레·이점은 그대로 기억하고, 쇘었다는 쇘다로 줄어든다.

NoteBase

9.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저는 (㉠)을 좋아합니다. (㉡)도 좋아하지만 (㉠)을 더 좋아합니다. (㉡)이 포근하고 은근한 누님 같다면 (㉠)은 다정한 형님 같습니다. (㉡)빛이 인자한 어머니의 빛이라면 (㉠)빛은 왠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의 빛이라고 생각됩니다. (㉡)빛은 마냥 따스하게 느껴지는 데 비해 (㉠)빛은 따스하지만 다소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그 차가움이 들뜨기 쉬운 마음을 들뜨지 않게 하고, 때로는 사물을 냉철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시인의 빛이 있다면 (㉡)빛보다는 (㉠)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저는 밤길을 걸어가다가 (㉡)을 바라볼 때보다 (㉠)을 바라볼 때 더 살아 있다는 감각이 느껴집니다. (㉡)이 (㉢)적이라면 (㉠)은 (㉣)적인 것이 아닐까요? (㉡)이 슬픔이라면 (㉠)은 그 슬픔을 껴안고 일어서는 기쁨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은 매일 변하지만 (㉠)은 변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	㉡	㉢	㉣
①	달	별	논리	감성
②	별	달	이성	감성
③	별	달	감성	이성
④	달	별	감성	이성
⑤	달	별	감정	논리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제시된 빛의 성질과 비유를 근거로 '별'과 '달'을 구별하고, 각각에 연결되는 '감성적'·'이성적' 성격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은 별이다. ㉠빛은 따스하면서도 다소 차갑고, 들뜨기 쉬운 마음을 가라앉혀 사물을 냉철하게 바라보게 하며, 변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된다.
㉡은 달이다. ㉡빛은 포근하고 은근하며, 인자한 어머니와 슬픔에 비유되고 매일 변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포근함·어머니·슬픔과 연결된 달은 감성적이고, 차가움·냉철함·불변성과 연결된 별은 이성적이다. 즉 ㉢은 감성, ㉣은 이성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 달, ㉡ 별'과 '㉢ 논리, ㉣ 감성'이 모두 뒤바뀌었다. '매일 변하는' 것은 달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별이므로 ㉠은 별, ㉡은 달이다. 또한 달은 감성적이고 별은 이성적이므로 올바른 배열은 '별-달-감성-이성'이다.
② X — ㉠을 별, ㉡을 달로 본 것은 맞지만 '㉢ 이성, ㉣ 감성'이 뒤바뀌었다. 포근함·어머니·슬픔으로 묘사된 달은 감성적이고, 마음을 가라앉혀 사물을 냉철하게 보게 하는 별은 이성적이므로 ㉢은 감성, ㉣은 이성이다.
③ O — '매일 변하는' ㉡은 달이고 '변하지 않는' ㉠은 별이다. 달의 포근하고 정서적인 속성은 감성에, 별의 차갑고 냉철한 속성은 이성에 대응하므로 '별-달-감성-이성'이 모두 문맥에 맞는다.
④ X — '㉢ 감성, ㉣ 이성'은 맞지만 '㉠ 달, ㉡ 별'이 뒤바뀌었다. '매일 변하는' ㉡이 달이고 '변하지 않는' ㉠이 별이므로 올바른 배열은 '별-달-감성-이성'이다.
⑤ X — '㉠ 달, ㉡ 별'이 뒤바뀌었고, 문맥의 대비도 '감정-논리'보다 '감성-이성'으로 파악해야 한다. ㉠은 별, ㉡은 달이며 달은 감성적이고 별은 이성적이므로 올바른 배열은 '별-달-감성-이성'이다.

오답 포인트

'따스하다'는 표현이 별과 달에 모두 쓰여 한 단어만으로는 둘을 가를 수 없다. 결정적 단서는 ㉡의 '매일 변한다'와 ㉠의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빛이 사물을 '냉철하게' 보게 한다는 표현이다. 이 단서들을 놓치면 천체의 배열이나 감성·이성의 대응을 서로 바꾸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마다 반복되는 서술을 모아 대상을 먼저 확정한다. '매일 변함'은 달, '변하지 않음'은 별로 연결한 뒤, '포근함·어머니·슬픔'은 감성, '차가움·냉철함'은 이성으로 대응시키면 된다.

암기 포인트

변하는 달은 감성, 냉철하고 변하지 않는 별은 이성이다.

NoteBase

10. 다음은 고전소설 <구운몽>의 한 부분이다. 문맥상 밑줄 친 단어의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사(大師)의 문하(門下)에 제재(弟子ㅣ) 수백 인인데, 계행(戒行)이 높고 신통(神通)을 얻은 재(者ㅣ) 삼십여 인이라. 기중에 ㉠유로 젊은 제자의 이름은 성진(性眞)이니, 얼굴이 백설 같고, 정신이 추수(秋水) 같고, 나이 이십 세에 삼장경문(三藏經文)을 통ㅎ지 못할 것이 없고, 총명(聰明)과 지혜(智慧), 중중(衆中)에 초출(超出)하니, 대새(大師ㅣ) 크게 중히 여겨 ㉡샹해 전도(傳道)할 그릇으로 기대하더라.
>
> 대새 매양 제자로 더불어 큰 법(法)을 강론(講論)할 제, 동정 용왕(洞庭龍王)이 백의노인(白衣老人)이 되어 법석(法席)에 참여하여 경을 듣더니, 대새 일일은 제자더러 이르되,
>
> "동정용군(洞庭龍君)이 여러 번 경을 들었으되 일찍 답례를 못 하였으니, 내 늙고 병들어 산문을 나지 않은 지 십여 년이라. 내 몸은 ㉢산문 밖에 가벼이 움직이지 못할 것이니, 너희 중 뉘 ㉣수부에 들어가 나를 대신하여 용군에게 회사(回謝)할꼬?"
>
> 성진이 가기를 청하거늘, 대새(大師ㅣ) 기뻐하여 허락하니, 성진이 가사(袈裟)를 정제(整齊)히 하고 ㉤육환장을 이끌고 동정으로 향하여 가니라.

① ㉠유로 - 특별히
② ㉡샹해 - 항상
③ ㉢산문 - 절간
④ ㉣수부 - 용궁
⑤ ㉤육환장 - 여섯 겹의 옷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문맥과 한자어의 뜻을 함께 살펴 고전 소설에 쓰인 어휘의 의미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특히 '육환장(六環杖)'의 '장(杖)'이 지팡이를 뜻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고전 어휘는 앞뒤 문맥과 한자의 뜻을 결합하여 해석한다. 유로는 '특별히', 상해는 '항상', 산문은 '절간', 수부는 '용궁'을 뜻한다. 육환장은 승려가 짚는, 여섯 개의 고리가 달린 지팡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유로 젊은 제자의 이름은 성진이니’에서 ‘유로’는 여러 제자 가운데 성진을 특별히 들어 말하는 뜻이므로 ‘특별히’가 맞다.
② O — 대사가 성진을 늘 전도할 인재로 기대했다는 문맥이므로 ‘상해’는 ‘항상’이라는 뜻이 맞다.
③ O — ‘산문 밖에 가벼이 움직이지 못할 것’은 늙고 병들어 절 밖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산문’은 ‘절간’ 또는 절의 경내를 가리킨다.
④ O — 동정 용왕이 사는 곳으로 가서 용군에게 사례한다는 문맥이므로 ‘수부’는 물속의 관부, 곧 ‘용궁’을 뜻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여섯 겹의 옷’이다. ‘육환장’은 여섯 개의 고리가 달린 승려의 지팡이를 뜻하며, 성진이 이를 끌고 길을 떠난다는 문맥에도 맞는다.

오답 포인트

‘육(六)’을 ‘여섯’, ‘환’을 ‘겹’으로 단순 대응하면 ⑤를 옳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장(杖)’은 지팡이라는 뜻이고, 지문에서도 성진이 가사를 정제한 뒤 육환장을 ‘이끌고’ 간다고 하므로 옷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낯선 고전 어휘는 한자 구성과 서술어의 호응을 함께 확인한다. 여기서는 ‘杖’의 뜻과 ‘육환장을 이끌고 간다’는 행동을 결합하면 지팡이라는 의미가 드러난다.

암기 포인트

육환장(六環杖)은 여섯 고리가 달린 승려의 지팡이이다.

NoteBase

11. 다음 중 합성어의 수는?

나무꾼, 뒤엎다, 병마개, 엿보다, 작은아버지, 짙푸르다, 헛되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어를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누어 합성어, 파생어, 활용형을 구별하고 합성어의 수를 세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합성어는 실질적인 뜻을 가진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며,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은 형태는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활용형이다.
제시어에서는 '병+마개', '엿+보다', '작은+아버지'가 합성어이므로 모두 3개이다. '나무꾼'은 접미사 '-꾼', '질푸르다'와 '헛되다'는 접두사 '질-'과 '헛-'이 결합한 파생어이고, '뛰었다'는 '뛰-'에 어미 '-었-', '-다'가 붙은 활용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2개'라는 수가 틀리다. 합성어는 '병마개, 엿보다, 작은아버지'이므로 올바르게는 3개이다.
② O — '병마개, 엿보다, 작은아버지'의 3개가 합성어이므로 맞다.
③ X — '4개'라는 수가 틀리다. '나무꾼' 등 파생어나 활용형을 합성어에 포함하지 않으면 올바르게는 3개이다.
④ X — '5개'라는 수가 틀리다. 접사가 결합한 '나무꾼, 질푸르다, 헛되다'는 파생어이므로 올바르게는 3개이다.
⑤ X — '6개'라는 수가 틀리다. '뛰었다'는 어간 '뛰-'에 어미가 붙은 활용형으로 합성어가 아니므로 올바르게는 3개이다.

오답 포인트

'나무꾼'을 '나무+꾼'으로 나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성어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꾼'은 접미사이므로 '나무꾼'은 파생어이다. 또한 '뛰었다'의 '-었-'과 '-다'는 어미이므로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어근이나 접사가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활용형에서 어미를 제외한 뒤, 남은 단어의 직접 구성 성분을 확인한다. 어근+어근이면 합성어, 접사+어근 또는 어근+접사이면 파생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어근+어근은 합성어, 접사+어근은 파생어, 어간+어미는 활용형이다.

NoteBase

12.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표준발음법에 맞게 발음한 것은?

> "이 바지는 길이가 너무 짧네요."

① [짬네요]
② [짤브네요]
③ [짭네요]
④ [짤레요]
⑤ [짤네요]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겹받침 'ㄼ'의 대표음과 뒤따르는 'ㄴ'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음화를 적용하여 '짧네요'의 표준 발음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짧네요'는 '짧-'과 '-네요'가 결합한 말이다. '짧-'의 겹받침 'ㄼ'은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되고, 이어진 'ㄹ'과 'ㄴ'은 유음화되어 'ㄹㄹ'로 발음된다. 따라서 발음 과정은 '짧네요 → [짤네요] → [짤레요]'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짼네요]는 겹받침 'ㄼ'의 대표음을 'ㄹ'로 발음하는 규칙과 유음화를 반영하지 않은 발음이다. 올바르게는 [짤레요]이다.
② X — [짤브네요]는 겹받침의 두 자음을 모두 소리 낸 발음이다. 자음 앞에서는 'ㄼ' 중 'ㄹ'만 발음하므로 올바르게는 [짤레요]이다.
③ X — [짭네요]는 '짧-'의 겹받침 'ㄼ'을 'ㅂ'으로 발음한 점이 잘못이다. 이 말에서는 'ㄹ'이 대표음이 되고 유음화까지 일어나므로 올바르게는 [짤레요]이다.
④ O — 'ㄼ'이 'ㄹ'로 발음된 뒤, 받침 'ㄹ' 뒤의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짤레요]가 된다.
⑤ X — [짤네요]는 'ㄼ'이 'ㄹ'로 발음되는 단계만 반영하고 'ㄹ+ㄴ'이 'ㄹ+ㄹ'로 바뀌는 유음화를 반영하지 않은 발음이다. 올바르게는 [짤레요]이다.

오답 포인트

⑤의 [짤네요]처럼 겹받침 'ㄼ'의 대표음만 처리하고 뒤의 'ㄴ'까지 그대로 발음하기 쉽다. 그러나 'ㄹ'과 'ㄴ'이 이어지면 유음화까지 적용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형태소 경계를 먼저 확인하고, 겹받침의 대표음을 정한 다음 그 소리와 뒤 음운 사이의 동화까지 차례로 적용한다. ‘짧네요’에서는 ‘ㄻ → ㄹ’을 적용한 뒤 ‘ㄹ+ㄴ → ㄹ+ㄹ’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짧네요: ㄻ은 ㄹ, ㄹ과 ㄴ은 ㄹㄹ이 되어 [짤레요]이다.

NoteBase

13. 다음 중세국어 짝의 의미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① 됴타(좋다) / 조타(깨끗하다)
② 디다(짊어지다) / 지다(떨어지다)
③ 녀름(여름) / 여름(열매)
④ 소(늪) / 쇼(소)
⑤ 물(무리) / 믈(물)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중세 국어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구별되던 낱말과 그 의미가 바르게 대응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됴타/죠타', '디다/지다', '녀름/여름', '소/쇼', '믈/물'처럼 자음이나 모음이 다른 형태를 별개의 낱말로 구별하였다. 따라서 현대어의 겉모양만으로 추측하지 않고 각 중세 국어 형태에 대응하는 뜻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디다'는 '떨어지다', '지다'는 '짙어지다'의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됴타'는 '좋다', '죠타'는 '깨끗하다'의 뜻이므로 의미 대응이 옳다.
② X — '디다(짙어지다), 지다(떨어지다)'는 두 낱말의 뜻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 올바르게는 '디다(떨어지다), 지다(짙어지다)'이다.
③ O — '녀름'은 '여름', '여름'은 '열매'를 뜻하므로 의미 대응이 옳다.
④ O — '소'는 '늪', '쇼'는 '소'를 뜻하므로 의미 대응이 옳다.
⑤ O — 'ᄆᆞᆯ'은 '무리', '물'은 '물'을 뜻하므로 의미 대응이 옳다.

오답 포인트

②의 '디다'와 '지다'는 형태가 비슷하고 현대 국어의 '지다'가 여러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의미를 뒤바꾸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짙어지다'와 '떨어지다'를 각각 반대 형태에 연결한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낱말을 현대어 형태로 막연히 바꾸지 않고, 제시된 중세 국어 형태와 뜻을 하나씩 직접 대응한다.
‘디다=떨어지다, 지다=짙어지다’를 기준으로 ②처럼 뜻이 서로 교환된 선지를 가려낸다.

암기 포인트

디다는 떨어지고, 지다는 짙어진다.

NoteBase

14. 다음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 이른바 '중심 문화'와 '주변 문화'라는 비대칭적인 양분 논리 속에서 후자에 속한 유목기마민족의 역사와 문명이 소외당해 온 것은 분명 문명사 연구의 한 오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대문명을 응징하기 위해 파견된 신의 채찍으로 역사의 그물을 찢고 인류 문명의 한 수레바퀴를 떠밀어 온 위대한 민족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명교류에 미친 영향을 비롯해 그들의 역사와 문명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문명사적 과제이다.
>
> 지금으로부터 약 1만~7천 년 전 신생대 제4기 충적세에 들어와서 북방 유라시아에 동서로 긴 지리대가 네 개 형성되었다. 즉 북극해에 면한 동토대와 그 이남의 침엽수림대, 북위 50도 부근의 초원 지대, 그리고 북위 40도 부근의 사막 지대이다.
>
> 그 중 초원 지대와 사막 지대는 대규모의 관개수리가 요구되므로 자연 농경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생계의 유일한 수단은 가축을 기르는 축산업이다. 그런데 축산은 목초가 필요하고, 인간이나 가축의 생명 유지는 수원(水源)이 필수이다. 게다가 계절의 변화는 인간이나 가축의 이동을 유발한다. 그 결과 수원이나 목초를 따라,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이동하고 순회하게 된다. 이렇게 가축을 사양하면서 수초를 찾아 가재와 함께 주거지나 활동지를 옮기는 사람들을 통칭 유목민이라 한다.
>
>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유목은 광역적 이동 목축의 주요 행위이며, 성원 대다수가 주기적 목축 이동에 참여하는 특유한 형태의 식량 생산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① 유목기마민족은 문명교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② 초원 지대에서 자연 농경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농업용수의 부족 때문이다.

③ 사막 지대에서 인간이나 가축이 이동해야 하는 문제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은 무관하다.

④ 가축을 기르면서 물과 풀을 찾아 주거지를 옮기는 사람들을 유목민이라 부른다.

⑤ 유목인 집단에서는 구성원 대다수가 주기적인 이동에 참여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유목의 발생 배경과 유목민의 생활·경제적 특징을 글의 내용과 정확히 대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유목은 자연 농경이 어려운 초원·사막 지대에서 가축을 기르며, 물과 목초 및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식량 생산 방식이다. 유목민은 가축과 함께 주거지나 활동지를 옮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글은 유목기마민족이 인류 문명의 한 수레바퀴를 떠밀어 온 위대한 민족들이며, 문명 교류에 미친 영향도 복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들이 문명 교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② O — 초원 지대와 사막 지대에서는 대규모 관개 수리가 필요해 자연 농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농경에 필요한 물을 자연 상태에서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내용과 일치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이동해야 하는 문제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은 무관하다'이다. 글은 계절의 변화가 인간이나 가축의 이동을 유발하며, 물과 목초를 따라 계절 변화에 적응하려고 끊임없이 이동한다고 하였다. 올바르게는 인간과 가축의 이동은 계절의 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야 한다.
④ O — 글은 가축을 사양하면서 수초를 찾아 가재와 함께 주거지나 활동지를 옮기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유목민이라고 한다. 선지는 이 정의와 일치한다.
⑤ O — 글은 유목을 광역적 이동 목축의 주요 행위이며, 성원 대다수가 주기적 목축 이동에 참여하는 독특한 식량 생산 경제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구성원 대다수가 주기적인 이동에 참여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글에 제시된 '계절의 변화는 이동을 유발한다'는 인과 관계를 '무관하다'로 뒤집었다.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무관하다', '항상', '전혀'처럼 관계를 부정하거나 범위를 바꾸는 표현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핵심 관계를 짧게 정리한 뒤 본문의 같은 부분과 대조한다. 원인과 결과, 주체, 범위, 긍정과 부정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 글에서는 '계절 변화 → 인간·가축의 이동'이라는 관계가 판단의 핵심이다.

암기 포인트

유목은 물과 목초를 따라 계절에 맞추어 이동하는 광역적 목축 생활이다.

NoteBase

15. 다음은 고전소설 <춘향전>의 한 부분이다. 글의 내용으로 볼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이 때, 향단이는 저의 아기씨 신세를 생각하여, 크게 우던 못하고 체읍(涕泣)하여 우는 말이,
>
> "어찌할거나, 어찌할거나. 도덕 높은 우리 아기씨를 어찌하여 살리시려오? 어쩌꺼나요, 어쩌꺼나요?"
>
> 실성으로 우는 양을 어사또 보시더니, 기가 막혀,
>
> "여봐라, 향단아,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너의 아기씨가 설마 살지 죽을쏘냐. 행실이 지극하면 사는 날이 있느니라."
>
> 춘향모 듣더니,
>
> "애고, 양반이라고 오기(傲氣)는 있어서……."
>
> "대체 자네가 왜 저 모양인가?"
>
> 향단이 하는 말이,
>
> "우리 큰아씨 하는 말을 조금도 괘념(掛念) 마옵소서. 나 많아 노망한 중에 이 일을 당해 놓으니, 홧김에 하는 말을 일분(一分)인들 노하리까? 더운 진지 잡수시오."
>
> 어사또 밥상 받고 생각하니, (　　)하여 마음이 울적(鬱寂), 오장(五臟)이 월렁월렁, 석반(夕飯)이 맛이 없어,
>
> "향단아, 상 물려라."
>
> 담뱃대 툭툭 떨며,
>
> "여보 장모 춘향이나 좀 보아야지."
>
> "그러지요.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야 인정이라 하오리까?"
>
> 향단이 여쭈오되,
>
> "지금은 문을 닫았으니, 바라[罷漏] 치거든 가사이다."

① 분기탱천(憤氣撐天)
② 동분서주(東奔西走)
③ 허장성세(虛張聲勢)
④ 은감불원(殷鑑不遠)
⑤ 노심초사(勞心焦思)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빈칸 앞뒤에 드러난 인물의 상황과 정서를 파악하여 뜻이 알맞은 한자 성어를 고르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분기탱천(憤氣撐天)은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구친다는 뜻이다. 어사또는 춘향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울적해하며 밥도 먹지 못할 만큼 크게 분노하므로 이 성어가 문맥에 맞는다.
동분서주는 매우 바쁘게 이리저리 돌아다님, 허장성세는 실속 없이 허세를 부림, 은감불원은 본받아 경계할 만한 전례가 가까이에 있음, 노심초사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분기탱천은 분한 기운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는 뜻이다. 춘향이 당한 일을 생각하며 격분한 어사또의 상태에 알맞다.
② X — 동분서주는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달린다는 말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뜻한다. 어사또가 분노하는 장면이므로 빈칸에는 동분서주가 아니라 분기탱천이 알맞다.
③ X — 허장성세는 실속이나 실력은 없으면서 허세만 부리는 태도를 뜻한다. 허세를 부리는 장면이 아니므로 빈칸에는 허장성세가 아니라 분기탱천이 알맞다.
④ X — 은감불원은 경계로 삼을 만한 실패의 전례가 멀리 있지 않다는 뜻이다. 과거의 일을 교훈으로 삼는 장면이 아니므로 빈칸에는 은감불원이 아니라 분기탱천이 알맞다.
⑤ X — 노심초사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운다는 뜻이다. 걱정과 근심보다 부당한 일을 들은 뒤 치솟는 분노가 중심이므로 빈칸에는 노심초사가 아니라 분기탱천이 알맞다.

오답 포인트

‘마음이 울적’, ‘오장이 울렁울렁’, ‘석반이 맛이 없어’만 보면 ⑤의 걱정과 근심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 향단이 춘향이 당한 일을 전하고, 어사또가 그 말을 생각한 뒤 보이는 반응이므로 핵심 정서는 걱정보다 격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주변의 감정 표현만 보지 않고 그 감정을 일으킨 사건까지 연결한다. 부당한 일을 듣고 분한 기운이 치솟는 문맥이면 분기탱천, 걱정 때문에 애를 태우는 문맥이면 노심초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분기탱천은 분노가 하늘을 찌름, 노심초사는 걱정으로 애를 태움이다.

NoteBase

16. 다음 중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이 싸서 일찍 끝냈구나.
② 그렇게 변죽을 치지 말고 바른대로 말해.
③ 그는 반죽이 좋아 웬만한 일에는 성을 내지 않는다.
④ 그는 살이 찌려는지 요즘은 입이 달아 무엇이든 잘 먹는다.
⑤ 그녀는 절에 간 색시같이 자발없이 나선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실제 의미가 문장의 상황과 맞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말이 결합하여 낱말의 표면적 의미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따라서 각 표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굳어진 의미와 문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손이 싸다'는 일 처리가 빠르다는 뜻이다. 일을 일찍 끝낸 상황에 알맞게 쓰였다.
② O — '변죽을 치다'는 바로 요점을 말하지 않고 주변 이야기만 빙빙 돌려 말한다는 뜻이다. 사실대로 바로 말하라는 문맥에 알맞다.
③ O — '반죽이 좋다'는 노여움이나 부끄러움을 잘 타지 않는 성질을 뜻한다. 웬만한 일에는 성을 내지 않는다는 설명과 어울린다.
④ O — '입이 달다'는 입맛이 좋아 음식이 맛있게 느껴진다는 뜻이다. 무엇이든 잘 먹는다는 문맥에 알맞다.
⑤ X — '절에 간 색시'는 제 뜻대로 나서기보다 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처지를 비유한다. '자발없이 나선다'는 뜻으로 쓴 부분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그녀는 절에 간 색시같이 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와 같이 쓸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⑤의 '절에 간 색시'를 절에 스스로 찾아간 사람이라는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자발없이 나선다'와 연결하기 쉽다. 그러나 이 표현의 핵심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태도가 아니라 남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용 표현을 익숙한 낱말의 뜻으로 추측하지 않고, 먼저 굳어진 의미로 바꾼 뒤 그 의미가 문장 전체의 상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손이 싸다=일이 빠르다, 변죽을 치다=요점을 빙빙 돌리다, 반죽이 좋다=노여움·부끄러움을 잘 타지 않다, 입이 달다=입맛이 좋다, 절에 간 색시=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NoteBase

17.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표기법이 옳은 것은?

> 어릴 때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적도 많았습니다. 시골 완행버스라는 게 장날에는 얼마나 ㉠ 왁짜하고 붐비는지요. 그 ㉡ 복새통을 뚫고 빈자리를 확보해서는 ㉢ 괘죄죄한 보따리나 가방 하나를 휙 던져 놓고 저만치서 ㉣ 쭈삣거리는 저를 끝끝내 앉히려던 어머니.
>
> 삶의 끝자락에 누운 뒤 처음으로 편한 잠 주무시는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저는 병실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 무연히 콧등이 시큰해져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다보니, 아, 무슨 꿈을 꾸시는지 어머니가 가뭇가뭇 웃으셨습니다. 저도 따라 웃다가 이불 밖으로 빠져나온 발을 만져 드렸습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단어의 정확한 표준어 표기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리 나는 대로 추측하지 않고 단어의 기본형과 표준어 형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 문항의 올바른 형태는 '왁자하다', '북새통', '꾀죄죄하다', '쭈볏거리다', '모연히'이다. 특히 '쭈볏거리다'는 어줍거나 부끄러워 머뭇거린다는 뜻으로, 머리털 등이 곤두서는 모양을 나타내는 '쭈뼛거리다'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 '왁짜하고'는 잘못된 표기이다.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요란하다는 뜻의 기본형은 '왁자하다'이므로 '왁자하고'로 고쳐야 한다.
② X — ㉡ '복새통'은 잘못된 표기이다.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떠는 상황을 뜻하는 표준어는 '북새통'이므로 '북새통을 뚫고'로 고쳐야 한다.
③ X — ㉢ '괘죄죄한'은 잘못된 표기이다. 옷차림이나 모습이 지저분하고 초라하다는 뜻의 표준어는 '꾀죄죄하다'이므로 '꾀죄죄한 보따리'로 고쳐야 한다.
④ X — ㉣ '쭈뼛거리는'은 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 어머니가 부끄러워하며 머뭇거리는 화자를 앉히려는 상황이므로 '쭈볏거리는'으로 고쳐야 한다.
⑤ O — ㉤ '모연히'는 별다른 까닭 없이 문득 어떤 느낌이 이는 모양을 나타내며, '모연히 콧등이 시큰해져'라는 문맥과 표기가 모두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왁짜-’, ‘복새통’, ‘괘죄죄-’처럼 실제 발음이나 익숙한 소리에 끌려 적기 쉽고, ‘쭈볏거리다’와 ‘쭈뼛거리다’는 형태가 비슷해 뜻을 구별하지 않으면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을 기본형으로 되돌린 뒤 표준어 형태와 문맥상 뜻을 함께 대조한다. 특히 형태가 비슷한 말은 문장의 상황이 ‘머뭇거림’인지 ‘곤두섬’인지처럼 의미 차이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왁자하다·북새통·꾀죄죄하다·쭈볏거리다·모연히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18.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것은?

① 아무런 증세가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
② 키가 몰라보게 컸구나.
③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④ 내일 아침이 밝으면 떠나겠다.
⑤ 사람은 늙거나 병들면 죽는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용언의 기본형과 문맥상 의미를 확인하여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작용 또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고,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상태를 나타낸다. 같은 형태의 단어라도 문맥에서 쓰인 의미에 따라 품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본형만 보지 않고 문장 속 의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문항에서 '없어서'만 형용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없어서'의 기본형 '없다'는 증세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다른 네 선지가 동사이므로 품사가 다른 말에 해당한다.
② X — '컸구나'는 여기서 키가 자랐다는 변화·성장을 나타내므로 기본형 '크다'가 동사로 쓰였다. '형용사라서 품사가 다르다'고 보면 틀리며, 올바르게는 '성장하다'의 뜻을 지닌 동사이다.
③ X — '있으면'은 '앞으로 사흘이 지나면'이라는 뜻으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므로 기본형 '있다'가 동사로 쓰였다.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보면 틀리며, 올바르게는 '시간이 지나가다'의 뜻을 지닌 동사이다.
④ X — '밝으면'은 밤이 지나 아침이 되어 환해지는 변화를 나타내므로 기본형 '밝다'가 동사로 쓰였다. '환한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보면 틀리며, 올바르게는 '날이 새다'의 뜻을 지닌 동사이다.
⑤ X — '늙거나'의 기본형 '늙다'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 상태가 변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보면 틀리며, 올바르게는 '나이가 들다'의 뜻을 지닌 동사이다.

오답 포인트

'크다', '있다', '밝다'는 익숙한 다른 문맥에서는 형용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형태만 보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②는 성장, ③은 시간의 경과, ④는 날이 새는 변화를 나타내어 모두 동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용언을 기본형으로 바꾼 뒤, 그 문장에서 단순한 성질·상태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움직임·작용·상태 변화를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특히 여러 품사로 쓰일 수 있는 단어는 문맥상 의미를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

암기 포인트

없다(존재하지 않는 상태)는 형용사이고, 크다(자라다)·있다(시간이 지나가다)·밝다(날이 새다)·늙다(나이가 들다)는 이 문맥에서 동사이다.

NoteBase

19. 다음 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풀은 줄기가 나무질이 아닌 초질(草質)로 이루어진 식물을 일컫는다. 풀의 땅 윗부분은 1년 또는 2년 안에 죽고, 줄기의 관다발에 있는 형성층이 1년이면 그 기능이 정지되며, 처음에 생긴 물관부 밖에는 비대 성장하지 않는다.
>
> 땅 윗부분뿐만 아니라 땅 아랫부분도 1년 만에 죽는 것을 한해살이풀(나팔꽃, 옥수수)이라고 한다. 이는 일생에 한 번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종자에서 발아한 풀이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에서 가을에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을 두해살이풀(시금치)이라고 한다. 이 중 해를 넘겨도 12개월 내에 시드는 식물을 한해살이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그 해 중에 시드는 것을 '하생(夏生) 년생 초본'이라 하여 해를 넘기는 식물과 구별한다. 이에 비해 땅 아랫부분이 여러 해에 걸쳐 생존하면서 한살이 동안 몇 차례 이상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을 여러해살이풀(은방울꽃, 자리공) 또는 숙근초(宿根草)라고 하며, 땅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모두 살아 있는 상태로 겨울을 나는 여러해살이풀을 상록 초본이라고 한다.
>
> 한해살이풀과 두해살이풀은 뿌리가 수염 모양으로 난 것이 많으나 여러해살이풀은 땅 아랫부분에 뿌리, 줄기, 잎이 변형된 덩이뿌리, 덩이줄기, 뿌리줄기, 비늘줄기가 있으며 양분을 저장하는 것이 많다. 야자나무과나 대나무 등은 본질적으로 풀에 속하는데 지상부가 몇 년 이상 살기 때문에 나무처럼 보이지만, 비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아니라 특수한 풀이라고 할 수 있다. 분류학적으로 초본과 목본이 같은 분류군에 속한 경우도 있다(국화과, 콩과).

① 풀과 나무는 줄기가 초질인지 나무질인지로 구분한다.
② 시금치는 상록 초본으로 볼 수 없다.
③ 상록 초본은 한살이 동안 여러 차례 꽃과 열매를 맺는다.
④ 덩이뿌리, 뿌리줄기, 비늘줄기를 가지는 한해살이풀도 있다.
⑤ 대나무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풀에 속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풀과 나무를 가르는 줄기의 성질과, 풀을 한해살이·두해살이·여러해살이로 나누는 기준 및 각 유형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풀은 줄기가 목질이 아닌 초질인 식물이고, 나무는 줄기가 목질인 식물이다.
한해살이풀은 한 해 안에 생활사를 마치고, 두해살이풀은 겨울을 보낸 뒤 이듬해 꽃과 열매를 맺는다.
여러해살이풀은 땅 아랫부분이 여러 해 살아남아 해마다 생장하며, 저장 기능을 하는 덩이뿌리·덩이줄기·뿌리줄기·비늘줄기 등이 흔하다. 상록 초본은 땅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모두 살아 있는 채로 겨울을 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풀은 줄기가 초질이고 나무는 줄기가 목질이므로, 줄기의 성질로 둘을 구분한다.
② O — 시금치는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꽃과 열매를 맺는 두해살이풀이다. 땅 아랫부분이 여러 해 생존하는 여러해살이풀인 상록 초본으로 볼 수 없다.
③ O — 상록 초본은 땅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모두 살아 있는 상태로 겨울을 나는 여러해살이풀이므로, 한살이 동안 여러 차례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한해살이풀도 있다'이다. 덩이뿌리·뿌리줄기·비늘줄기처럼 양분을 저장하는 변형 기관이 흔한 것은 여러해살이풀이고, 한해살이풀과 두해살이풀의 뿌리는 수염 모양인 경우가 많다. 올바르게는 '덩이뿌리, 뿌리줄기, 비늘줄기를 가지는 여러해살이풀도 있다'이다.
⑤ O — 대나무는 지상부가 여러 해 살아 나무처럼 보이지만 줄기가 비대 성장하지 않으므로 본질적으로 풀에 속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저장 기관의 명칭 자체는 지문과 같지만, 그 기관이 나타나는 대상을 '여러해살이풀'에서 '한해살이풀'로 바꾸었다. 형태의 이름보다 그 특징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풀과 나무는 줄기가 초질인지 목질인지로 가른다. 풀의 수명 유형은 땅 윗부분이 죽는 시점뿐 아니라 땅 아랫부분이 몇 해 동안 생존하는지도 함께 본다. 저장용 변형 기관은 여러 해 살아남는 여러해살이풀의 특징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초질 줄기는 풀, 목질 줄기는 나무이다. 수염뿌리는 한해·두해살이에 많고, 저장용 변형 기관은 여러해살이에 많다.

NoteBase

20. 다음 문장의 밑줄 친 외래어를 다듬은 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근 하루에 한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가 인기를 끌고 있다. → 공동할인구매

②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가 늘면 사업자의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고, 그 비용은 전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암거래 소비자

③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이 치킨게임(chicken game)을 벌이고 있다. → 끝장 승부

④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생각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 백지 상태

⑤ 최근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무선 인터넷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Wi-Fi) 지역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 근거리무선망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외래어의 실제 뜻을 문맥에 맞는 우리말로 정확하게 다듬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래어를 다듬을 때에는 겉모양을 직역하지 않고 그 말이 실제로 가리키는 대상과 문맥상의 의미를 옮겨야 한다. 특히 black consumer의 black은 '암거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소비자의 악성 행태를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소셜 커머스는 여러 소비자가 함께 구매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는 방식이므로 '공동할인구매'로 다듬은 것이 적절하다.

② X — '암거래 소비자'가 틀린 표현이다. 블랙컨슈머는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해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뜻하므로 '악성 소비자'로 다듬는 것이 적절하다.

③ O — 치킨게임은 어느 한쪽이 물러설 때까지 양쪽이 극단적으로 맞서는 승부를 뜻하므로 '끝장 승부'가 의미에 맞는다.

④ O — 제로베이스는 기존의 전제나 틀을 두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상태를 뜻하므로 '백지 상태'로 다듬을 수 있다.

⑤ O — 와이파이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게 하는 통신망이므로 '근거리무선망'이 의미에 맞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black을 '검은 거래', 곧 암거래로 직역하면 오답이 된다. 이 문장에서 문제 삼는 것은 거래 방식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비용을 늘리는 소비자의 행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래어의 영어 단어를 낱말별로 직역하기보다 문장 속에서 그 외래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행동과 기능을 먼저 확인한다. 다듬은 말이 그 핵심 의미를 그대로 담는지를 선지마다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블랙컨슈머는 암거래 소비자가 아니라 부당한 요구를 일삼는 악성 소비자이다.

NoteBase